

방송 단선

쌍계사 위성생중계

불교텔레비전은 오는 8일 쌍계사에 오픈스튜디오를 마련하고 SNG(이동통신중계기)를 통한 '날마다 좋은날'(10:10~11:10)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한국통신의 위성중계기 설비를 이용한 생방송 중계가 본격화된 불교텔레비전은 해인사 등 산중사찰 주요행사들을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및 제등행렬 등도 btv에 독점방송하여 중계기로 KBS와 협의했으며 MBC와는 협의중이다.

btv 시청률 2위 차지

불교텔레비전의 시청률이 프로그램 송출 20개 공급사 중 YTN(연립TV뉴스)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수주율도 2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유선전화 비공식 집계결과 밝혀졌다.

BBS 5월1일 프로개편

불교방송은 불철 프로그램을 5월1일 개편한다. 불철 프로그램 개편은 매년 3~4월에 시행했으나 올봄 프로그램 개편은 광주·부산개국과 개국5주년 등을 고려해 개국일인 5월1일에 개편기로 했다.

한편 새로 기획되는 프로그램은 신원주의의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TV '관음' 제작

문화방송(MBC)은 부처님 오신날 기념 특집방송 다큐멘터리 '관음'을 찾아서(가칭)(연출 김성환)을 오는 5월7일 방송한다. '관음'을 찾아서'는 한 학 인스님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에 뿌리내린 관음연방의 유래, 의미, 성격등을 짚어본다.

BBS '피안을...' 방송 4돌 4백32명 감동의 얘기 수놓아

'맑고 순수한 신행담' 생활의 경건함 느끼게

숨은불자의 신행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가는 '피안을 향하여'(PD 조은정)가 '이 시대 이런불자가 있구나' 하는 감동 속에 방송 4주년을 맞았다. 이 때까지 '피안을 향하여'는 출연자만 4백32명에 이르며 그동안 맑고 순수한 수많은 웃음과 울음을 자아냈다.



◇ 불교방송의 '피안을 향하여'가 우리시대에 살아있는 보살들의 감동적인 얘기를 들려주며 방송 4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노인봉양하며 수행하는 모희스님과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오선희 보살.

이 프로에 출연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곳에서 다른 일들을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몸을 바친 보살행으로 이 세상을 피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청취자들은 방송을 들을때마다 새롭게 삶의 가치를 배우며 불자다운 삶을 서원한다. 고아들과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스님들의 얘기, 나의 불행을 이웃의 행복으로 승화

시키는 보살행,미용사,화가,장애인들의 삶들로 엮여지는 '피안을 향하여'는 우리시대 불자들에게 신행의 보람을 주고 있다. 더욱이 프로를 값지게 하는 것은 보살행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불자를 새로운 보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란게 방송가의 정찬이다. 불교방송 포교프로의 전위에서 있는 '피안을 향하여'는 모르고 지내던 이웃을 만나는 듯한 반가움으로 청취자

들에게 다가가는 프로이다. 한 출연자의 얘기를 3일씩 나눠 들려주기 때문인지 한번 맛을 들이면 매번 들게된다는 것이 청취자들의 얘기. 그동안 연출자만도 김정학, 이선희, 강병래, 하현목, 진영조, 조은정 PD로 바뀌며 보다 새로운 인물찾기에 몰두해 왔으며 문정희(시인), 황정원(시인), 박광서(서강대 교수), 강부지(국회의원), 최정희(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씨로 이어진 진행자들도 유달리 애착이 생기는 프로라고. PD 조은정씨는 "흐트러진 자세를 갖출 정도로 생활의 경건함을 느낀다"며 누구든 좋은 얘기의 열린마음으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btv TV신행상담

고민·상담 대안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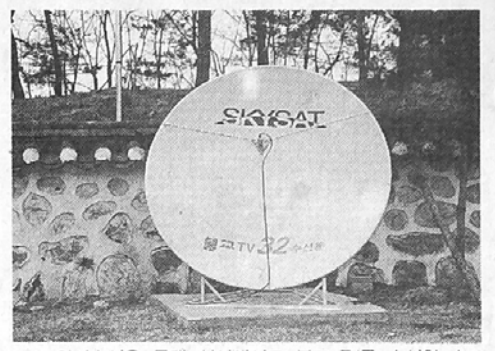
'결혼할 때 종교가 문제되는가?' 불교텔레비전의 신행상담프로 'TV신행상담'은 오는 6일 방송되는 '종교와 결혼'에서 집안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부부들의 인연과 결혼후 문제들이야기 한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 시청각을 통한 사례들과 각계 각층의 의견도 곁들여 불교적 대안을 제시한다.

'TV 신행상담'은 이영숙 아



나운서의 진행으로 잔유스님(여수 석현사 주지)과 관계전문가가 출연하고 '진리의 진화'상담원의 지원봉사로 꾸며진다. 슬픔은 함께하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함께하면 두배로 늘어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TV 신행상담은 높은 전화참여와 방청객 내방객이 발하는 토론으로 열기가 뜨거운 프로.



◇ 위성수신을 통해 신사에서도 불교 TV를 수신할 수 있다. 사진은 수원 용주사에 설치된 위성 안테나.

"산사서도 TV부처님 만나다"

69곳에 위성수신 장치-신청 계속늘어

깊은 산중의 암자라도 TV 부처님을 달려간다. 불교텔레비전이 전국 산사를 위해 각 교구본사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한데 이어 산중사찰의 유선TV 가입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불교텔레비전은 3월29일 현재까지 75개 산중사찰의 유선TV 수신 시설 신청을 받아 69곳 사찰에 불교TV 채널을 열어 주었다. 각 본사에 설치된 위성안테나와 같은 기종의 위성안테나를 설치한 산중 사

찰로 배달되는 불교TV의 화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2월25일 이전에 각 본사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했으며 통도사 서운암, 경부 문경 감동사, 강원도 정선 정암사 등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했다. 한편 산중사찰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할때는 설치비 1백65만원(가방이 든다. (문의=02)3270-3300)

"영상사업·지방조직 추진활발"

btv 새사업 밝혀... '한국의 명찰' 등 제작 판매도

불교텔레비전은 지난달 27일 교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차 불자주식공모 계획,케이브TV 사업현황과 시청기구수 진방, 영상사업부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불교텔레비전은 제2차 불자주식공모를 2백여 규모로 3월30일부터 6월29일까지 공모하며 1인 최저 20주(10만원)로 전국 시중은행 본·지점, 농·수·축협에서 청약키로 했다. 케이블TV는 3월13일 현재 28만여 가구가 시청중이며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컨버터가

양산제에 들어가 어려움이 해소됐다. 또 영상사업부 사업이 활발하여 월1억의 수입을 올려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MBC '일본속의 한국문화' 등 10여개의 제작사업과 한국의 명찰 등을 주문제작 판매하고 있다. 한편 불교텔레비전은 시청자 설명회를 광주는 12일, 대구 4월 중순경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후원회 조직과 지사설립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 btm ch32 -

△지비의 천수천인(4월)=강동관(15세), 강동수(14세) 형제는 슈퍼에서 박스를 정리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81세된 할아버지 강장순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5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은 두 형제의 이야기는 눈물로 이어지고 ... △김병조의 스타쇼(5월 11:10~12:00)=무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뭘든 해낼 수 있는 연극인 김성녀씨,자연석 부처를 모시고 나와 그녀의

방송 하이라이프

불심과 신행을 이야기하는데, 전통제 맞으며 공연한 갈비뼈사건, 오디션도 거치지 않았던 데뷔이야기 남민아씨가 등 그녀의 삶을 조명한다. △실크로드(6월 12:30~13:20)=아르간트에서 길은 두갈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카쉬가르로 통하는 옛날길이고 또 하나는 역시 카쉬가르로 향하는 오늘날의 실크로드라 할 수 있는 길인데 부유한 이곳 원주민들의 생활과 민속음악, 무용이 소개되고 앞으로

실크로드의 면모가 그려진다. △만행승 케인(8월 12:30~13:20)=순은 광부들과 생활하며 금광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지만 애완을 고양이를 사고로 잃는다. △퀴즈대장경(5월 15:05~15:55)= '점심'은 원래 선종에서 '배에 짐을 짊어 만큼 적게 먹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 5일 퀴즈대장경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불교에서 나온 말>을 주제로 퀴즈대결과 해설을 준비하고 있다. △백팔기요(8월 12:20~) 백팔기요가 부산현지에서 직접 생방송한다. 지역불자와 함께 호흡하는 생동감있는 방송을 위해 마련된 이번 지역 생방송은 12일 광주에서도 선보인다. △원효와 의상(1월20:00~21:00)=한국불교의 두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원효와 의상을 재해석.

5천여 불자가 이미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화엄경의 大講主 無比스님이 10년의 각고 끝에 완성한 화엄경 전12권

발간 두달만에, 無比스님 완역 한글화엄경을 구입하신 5천여분의 불자가 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의 세계를 확인하셨습니다.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이제 화엄경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족사관 한글화엄경 전12권은, 80권本 화엄경을 모두 한글로 완역하여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엄경의 전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락을 나누고 상세한 소제목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미려한 편집과 큰 활자, 최상의 고급지 사용, 영구보존판 양장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한 中國 天童山만 80화엄경 원문을 두 권에 수록하였고, 화엄경의 주요 어휘를 알기쉽게 풀이한 <華嚴經小辭典>을 발간하여 독자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無比스님 완역 민족사관 한글화엄경의 특색입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도서출판 민족사가 펴낸 무비스님 완역 <한글화엄경> 전12권은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華嚴經 전40품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 이 책은 한국불교의 사상적 원천인 화엄사상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일보 — 무비스님 완역 한글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

대덕스님과 석학들이 한결같이 권하는 무비스님 완역판 한글화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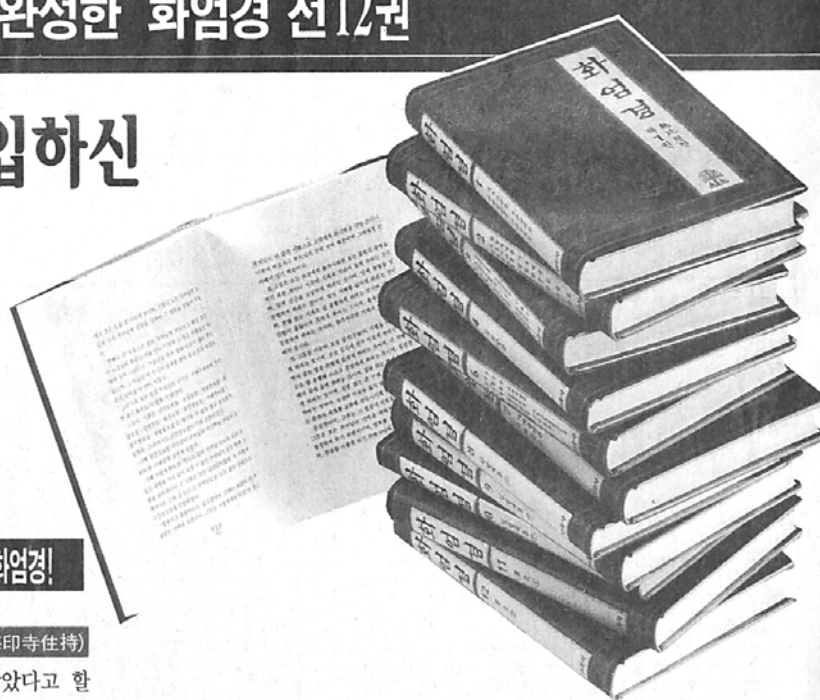
李智冠 스님(哲學博士, 前東國大 總長, 現海印寺住持) 누구나 화엄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교를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불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精讀하여야 할 책이라 생각되어 藏書로는 물론, 특히 젊은 학인스님과 불자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金知見 박사(文學博士,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教授) 우리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가이없는 자양을 이루어 온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불자 여러분에게 無比스님의 완역편찬 한글화엄경을 삼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權奇愷 박사(哲學博士, 東國大學校 佛敎大學 學長) 화엄경을 바르게 읽고 실천하는 길이 바로 우리나라 불교의 일을 되살리는 일임을 불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무비스님 완역편찬 한글화엄경의 수지독송을 권하는 바입니다.



보다 편리해진 구입방법 및 특전

- 1. 특가 전 12권 160,000원(2회 분할)(각종 카드로도 구입 가능)
2. 신청 즉시 택배나 소포로 보내드리며, 화엄경소사전과 화엄변상도(1장), 화엄경 강연테이프(무비스님, 고은선생) 2개를 증정합니다.
3. 송금방법: 아래의 은행구좌나 소액환을 이용하십시오.
(조흥은행) 390-01-033705 민족사 (제일은행) 130-10-080370 윤계승
(농협) 032-01-088461 윤계승 (의환은행) 059-18-17838-6 윤계승
(우체국) 010041-0097045 윤계승 (국민은행) 023-01-0225-854 민족사
(신협은행) 15504-0475103 윤계승 (상업은행) 113-04-101987 민족사

도서출판 우편번호 110-130 서울 중로구 청진동 208-1 민족사 전화: (02)732-2403~4, 722-7679 팩스: (02)739-7565

지방취급처: 부산: 고려불교예술원(807-6842) 삼정원(464-2696) 경공포교사님(부산 334-3035, 휴대폰 011-572-3007) 광주: 불일서점(232-7542) 불교전서관(647-7393) 영광도서(816-9500) 부산불교문화사(466-3884)